

[2012년 1차 경찰공채 : 한국사 기출 정답 및 해설] - 원유철(우리경찰)

고대(6)			고려 (2)	조선(5)		근현대(6)		
선사	초기국가	고대국가		전기	후기	개항기	일제	현대
X	1	5	2		4	3	3	X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

※ 출제유형

초기국가	부여 / 고구려(서옥제)		
고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대사 : 4c ~ 6c 왕대사 / 통일이후 신문왕 • 발해사 : 통사적으로 출제 • 사회경제사 일반론 • 문화사 ↳ 유학자 : 유학보급과 발달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미술 : 돌무지덧널무덤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제도 : 도병마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수취체제 : 영정법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 정부의 사회시책(복지정책) : 동서대비원 • 향도(香徒) • 조선후기 사회사 : 신분제도, 지방사회사(사족의 지위 약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사상사 : 18c 사상의 변화 → 인물성동이논쟁(호락논쟁) • 조선후기 편찬사업 :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종휘 동사 		
개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군 집정기 : 대원군 정책의 특징(왕권 강화, 삼정문란 시정 노력) • 갑신정변 : 급진개화파의 재정정책 • 독립협회 vs 대한제국(고종황제) 		
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운동사 • 3·1운동의 배경 :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특징 • 신간회 / 20년대 초반사 • 한국사학사 : 백남운 /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 참고 : <많이 푸는 문제집>은 논란이 되는 부분만 소개하였다.

1. 다음 보기에서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벌은 엄격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적몰(籍沒)하여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에 버려서 썩게 하였다. 친정집에서 (그 부인의 시체를) 가져 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1

『삼국지 위지 동이전』

- ①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여 명이나 되었다.
- ②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농경과 목축이 성하였다.
- ③ 제천행사 기간 동안에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죄인을 재판하여 풀어주었다.
- ④ 서옥제(婿屋制)라는 데릴사위제 풍속이 있었다.

정답. ④ 고구려 혼인풍습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6 // 제시문은 부여에 대한 사료이다.

2. 다음 보기의 내용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국학의 설치
- ㉡ 독서삼품과의 시행
- ㉢ 도당유학생의 파견

- ① 유학의 보급
- ② 당과의 교류 확대
- ③ 귀족들의 왕권에 대한 견제 강화
- ④ 풍수지리사상의 유행

정답. ① 유학발달에 관한 사실을 보여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173

★ tip. 학교와 관리선발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과 관련된다.

3. 다음 보기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 발해는 당과 신라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처음에는 북으로 돌궐, 남으로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 ㉢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③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p151-2, 132, 135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발해의 주민이나 혹은 지배층 모두 구성은 고구려인과 말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비중에 있어 차이가 있어 발해의 고구려적 요소와 말갈적 요소를 살필 수 있다. // 단순하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어 구성요소를 전적으로(100%) 특징지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 출제동향 : 발해는 크게 4가지 대표적인 문제유형이 있다. 민족사 여부, 왕대사(8c 왕대에 집중), 제도사(전통적인 문제유형/주로 중세와 비교), 발해의 문화유산 등이다. 이 4가지 논점에 맞추어 범주를 구성하고 그 외의 것은 몇 가지 특징만 익혀두면 될 것이다.

4. 다음 보기의 제도를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진대법의 실시
- ㉡ 녹읍의 혁파
- ㉢ 정전(丁田)의 지급

- 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 ② 귀족의 경제 기반 확대
- ③ 농민의 경제 안정
- ④ 귀족 중심 관료체제의 운영 강화

정답. ③ 농민의 경제안정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국가의 대민통제력 강화)하고자 실시했던 것이다.

★ tip. 전근대 정부시책은 크게 대민안정책과 대민통제책으로 나누어진다. 이 둘은 모두 백성들의 안정을 통한 국가의 민 통제력 강화와 또 재정확보 증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5. 다음 중 조선후기 심화된 국학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의봉의 『고금석림』에는 방언과 해외언어가 정리되어 있다.
- ② 이종휘의 『동사』는 일본 연구를 통해 고대사의 시야를 해외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 ③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④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정답. ② 한치윤의 『해동역사』가 중국, 일본 등 방대한 양의 외국자료를 인용해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 이종휘의 『동사』는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역사연구의 관심을 만주지역으로 확장시킨 역사서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43(1쇄 중세 355) / <[많이 푸는 문제집-중세](#)> pp438,437 ① 이의봉의 『고금석림』은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를 해결하고자 만든 책으로 방언과 외국의 많은 어휘 심지어는 도교·불교의 용어 등 풍부한 용어를 수록한 어휘집이다.

★ tip. 한국사에서 일본 자료까지 활용했다는 기사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수험에서는 아주 한정된다. 미리 모아 알아두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6. 다음 중 삼국시대 각국의 문화적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제는 초기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다.
- ② 많은 부장품을 남긴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양식은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③ 일본의 석상신궁에 있는 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왕에게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일본 나라시의 다카마쓰 고분에서 고구려 수산리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발견되었다.

정답. ②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 독자적인 양식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193

* 출제동향 : 고대문화사는 사상사 외에 불교미술과 고분미술이 중요하다. 방점을 잘 찍어 공부를 해두면 공부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7. 다음 중 고려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병마사 : 왕명에 의해 귀족들의 죄를 다스리는 사법기관이었다.
- ② 중추원 :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③ 상서성 : 6부를 거느리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 ④ 정방 : 최씨 무신정권 때 최우가 설치하였으며, 인사행정을 관장하였다.

정답. ① 말 그대로 병마사(양계의 장관)를 통할하는 기구이다(중앙에 설치). 즉 국방문제를 담당하는 국방기구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228(1쇄 중세 28) // 왕명에 의해 양반사족들의 죄를 다스리는 사법기구는 조선시대 의금부이다.

* 출제동향 : 중세부터는 제도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특히 중앙제도가 나온다면 고려시대 중앙제도에 더 집중될 것이다. 조선시대 중앙제도가 나오면 다소 지엽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중앙제도는 궁중 도서기구와 사림정치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주요하게 봐라).

8. 다음 중 고려시대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창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었다.
- ② 상평창 : 물가조절기관으로 개경과 서경, 12목에 설치되었다.
- ③ 제위보 :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이었다.
- ④ 대비원 : 구료기관으로 개경과 3경에 설치되었다.

정답. ④ 대비원은 개경(동·서대비원)과 서경(분사 설치)에 설치되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274(1쇄 중세 74)

★ tip. 사회사의 구조

- └ 사회제도
 - └ 정부시책 : 대민안정책(창, 보 | 의료복지) / 대민통제책
 - └ 신분제도
 - └ 사회활동 : 가족제도 및 여성의 지위, 지방사회사(고려시대 향도 || 조선시대 향·향·향·서)
- ⇒ 범주를 정하고 각 범주별 용어의 특징을 잘 잡아두면 불의타가 등장해도 풀 수 있다.

9. 다음 보기와 관련된 조선시대 조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사천 매향비는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으로, 내세의 행운과 국태
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두레
- ② 향약
- ③ 향도
- ④ 동계

정답. ③ 향도(香徒)에 관한 설명이다. 향나무를 묻는 것을 매향(埋香)이라 한다. 매향하는 무리를 향도(香徒)라 본디 일컬었다. 실제 향도는 매향 외에도 각종의 불교행사를 주관하고 뒤에는 농민들의 향촌 내 공동행사를 서로 돋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향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다 서서히 유교식 공동규약인 향약(鄉約)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그 전통이 남은 채 서서히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인 두레로 흡수되어 갔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283(1쇄 중세 83) / <[많이 푸는 문제집-중세](#)> p75

10. 다음 보기의 시기와 관련된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 나 하며 자(字)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00(1쇄 중세 309)

『목민심서』

- ①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함으로써,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② 양반은 촌락 단위보다는 군현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였다.
- ③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在地士族)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에 적극 참여하였다.
- ④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자식을 양민으로 삼는 법이 실시되었다.

정답. ② 군현단위의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면서 양반사족들은 동리단위로 내려가 동리단위의 동약·동계 등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06(1쇄 중세 315)

* 출제의도 : 제시문은 조선후기의 특징을 묻고 있다. ① 후기 서얼들의 신분변화를 묻고 있음 ② 사족의 지위 약화: 군현단위에서 지위를 잃고 동리 단위로 내려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함 ③ 신향의 성장을 말함 ④ 후기 노비의 신분변화: 종모법

11. 다음 중 조선후기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 ②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③ 인조대에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전세를 조절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 ④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정답. ③ 영정법은 전세를 풍흉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을 폐기하고 1결당 4두로 고정시킨 것이다. 이른바 ‘고정법’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469(1쇄 중세 278)

* 수취체제의 변화

		15c	16c(문란)	17c	18c 이후	19c
전세		공법(세종) -차등수조 (20~4두)		영정법(인조) →고정수조(4두) (연분 9등법 폐지)		
역 역	군역	보법(세조) -보인 2명	대립제, 방군수포 ⇒군적수포제 (중종) - 2필		균역법(영조) - 감포(1필)+a (결작2두), 선 무군관포, 어염 선세) -양반에 포부과 실패(호포실패)	호포법(대원군) →양반과 상민의 지위 동등
	요역		대립제	고립제		
공납		토산물 직접 납부	방납	대동법(광해) →전세화(12두)		
※ 환곡		재정기능으로 변질		조선후기 하나의 세원으로 정착 : 환정		환정문란

12. 다음 중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정부와 삼군부를 통합하고, 비변사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 ②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개혁하여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 ③ 종래의 상민(常民)에게만 징수해 온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확대·징수하였다.
- ④ 법치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大典會通)』을 간행하였다.

정답. ① 비변사를 혁파하고 삼군부와 의정부를 복설하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69(1쇄 근현대 7)

13. 다음 중 독립협회의 활동 및 광무개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립협회는 1898년에 대구, 평양 등지에 지회를 설립하고, 서울에서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 ② 독립협회는 양전지계사업을 시행하여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주제를 점차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③ 광무정권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여 통치권을 국왕에게 집중시키되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적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 ④ 독립협회는 궁극적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갖는 공화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정답. ① 독립협회는 지부가 있는 조직이다. 독립협회의 정치활동은 1898년에 집중돼 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658, 664(1쇄 근현대 96, 102) // ② 양전사업은 대한제국의 사업. ③ 광무정권은 전제황권 중심의 개혁정치 시행(의회제 X, 공화제X). <[원유철의 역사일지](#)> p670(1쇄 근현대 108) ④ 공화제는 신민회를 제외하고는 국권피탈까지 대부분의 개화세력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제국	독립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무개혁(구본신참: 동도서기적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제권 강화 : 대한국 국제, 원수부 창설 ↳ 농업정책 : 광무 양전 · 지계사업 ↳ 상공업 정책 * 전제황권 강화 : 의회X, 입헌군주제X, 기본권X 등 * 권력분점을 뜻하는 용어 사용 X * 공화제(국민국가 지향) : 일제시대 전까지는 거의 유일하게 신민회만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프 등 이권침탈 반대 • 자주 + 민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설립운동 ↳ 인권운동: 피고인 인권존중 등
<p>★ tip. 개화파 관료 vs 고종의 구도 이해 개화파 관료들의 민중 인식 이해</p>	

14. 다음 보기의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인민 평등권의 내용과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을 표방하였으며 행정 조직의 개편과 조세제도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던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반 지주층 일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꾀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세의 조선침략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농민들의 바람인 토지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614-5(1쇄 근현대 p52-3)

- ①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을 없앴다.
- ②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개화정책을 수행하였다.
- ③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 와해되었다.
- ④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정답. ④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611(1쇄 근현대 p49) // ① 독립협회 ② 대한제국 ③ 신민회

★ tip. 개화정책의 정의가 ‘부국+강병’책이라는 것. ⇨ ‘부국’책과 ‘강병’책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이해하는 것

15. 다음 중 3·1운동의 대내외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적 약탈과 사회적·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전 민족적으로 고조되었다.
- ②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은 자국 내 100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자결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 ③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다.
- ④ 1919년 신한청년단에서는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정답. ③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전승국의 식민지는 제외되고,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64(1쇄 근현대 p204) // ②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오히려 실효성이 있었고(cf. 최근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설이 나와 있다→중요하진 않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기망에 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상당수의 피식민지 민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④ 1차 대전 이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1918년에 신한청년당이 만들었고 이들에 의해 파리강화회의에 직접 대표(김규식)가 파견되었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직접 알리기 위함이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45(1쇄 근현대 p185) / <많이 푸는 문제집-근현대> p266

* 참고 : 제1차 대전 종결 이후의 정세

1918년	제1차 대전 종결 → 파리강화회의 개최(미국 윌슨 대통령의 연설 예정) → 이 소식이 국내외 민족운동계에 급속하게 전파됨
1919년	• 신한청년당의 활동 :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해 우리의 실정을 직접 알리고자 함

	(파견일에 대해 1918년, 1919년 논란이 있으나, 1919년 1월쯤 파견했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의 독립선언 발표 : 만주, 동경(2·8), 국내(3·1) 3·1 만세운동(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번짐 	
1920년 (3·1운동 영향)	만주	여러 군단 형성 → 일본군과 전투
	관내	임시정부 수립(공화제 표방) : 외교노선 중심

16. 다음 중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역사가와 그 업적이 가장 적절하게 짹지어진 것은?

- ① 신채호 : 1915년 근대적 역사인식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 근대사로 평가되는 『한국통사(韓國通史)』를 저술
- ② 박은식 :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역사는 “인류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주장
- ③ 백남운 : 한국사의 발전법칙성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사학을 통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停滯性論)을 비판
- ④ 정인보 : “국가는 멸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역사를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의 기록이라 주장

정답. ③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은 인류역사의 보편적인 발전법칙을 한국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사가 세계사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이 부정한 조선시대 봉건사회 부재론(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해 봉건제 존재의 입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24(1쇄 근현대 p162) // ① 박은식 ② 신채호 ④ 박은식 <많이 푸는 문제집-근현대> p209-10

※ 정리 : 근대 사학

민족주의 사관	• 타율성론 비판 → 자주적인 역사를 부각 → 상고사에 대한 역사 중시	
	신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 낭가정신 강조 근대 민족주의 사학 개척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묘청논문))
	박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흔(魂) 강조 : 역사를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의 구성으로 봄 → “나라는 망해도 국혼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국권회복” 근대민족주의 사학 개척 / 유교구신론(양명학), 대동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정인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 강조 안재홍, 문일평 등과 1934년 조선학운동 주도. 연희전문 교수(백남운 동료) <조선사연구>,
	문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심 강조 : 세종을 조선심의 대명사로 봄 <한미외교사>(최초의 한미외교사)
•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 :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됨(보편적 사관으로는 곤란) → 저항(투쟁)을 강조하여 발전사관에 대해서는 미약
실증주의 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도, 이상백, 김상기 • 역사의 객관성 주장(정치성 탈피) : 문헌고증에 따른 과학적·객관적인 역사학 추구 → 역사학을 위한 역사학(학문을 위한 학문)이 돼버림(일제의 학문적 도구가 됨)
사회경제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론(중세사회 부재론) 비판 → 중세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 • 백남운, 이청원, 전석담, 김석형, 박시형 • 유물사관 도입 : 보편적 역사발전 주장(역사발전 5단계설) → 한국의 역사학을 세계적인 보편성 안에서 설명(세계사적 보편성 확립에 기여) → 계급[보편성]을 중시하여 민족이 처한 현실[특수성] 인식에 대해서는 부족(민족모순 보다 계급모순 중시)
신민족주의 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재홍, 손진태, 이인영, 홍이섭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대비한 방안으로 중도우파의 견해를 대변) • 계급개념과 민족개념을 포함시킴(계급보다는 민족주체의 성장·발전) → 좌익과 우익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뤄내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협력을 모색하고자 함. 유물사관의 계급투쟁적 성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 <조선상고사감>(안재홍)

17. 다음 중 조선시대 성리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는 주례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황을 계승한 남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두고 호락논쟁을 벌였다.
- ③ 서경덕과 조식은 노장사상에 포용적이었다.
- ④ 소론 성리학자들은 양명학이나 노장사상 등을 수용하였다.

정답. ② 호락논쟁은 18c에 벌어진 노론내부의 논쟁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18\(1쇄 중세 330\) / 〈많이 푸는 문제집-중세〉 pp275,423,434](#) // ① [〈원유철의 역사일지〉 p367\(1쇄 중세 174\)](#) ③ 서경덕은 불교와 노장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여 후일 실학발달의 토대가 되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16\(1쇄 중세 328\)](#) ④ 양명학은 소론세력에 의해 발전되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530\(1쇄 중세 342\)](#)

★ tip. 최근에는 실학의 실체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면서 시험문제에서도 실학은 많이 약해진 편이다(능력 검정시험은 예외). 필요한 것을 잘 선별해서 그 위주로 보면 될 것 같다.). 실학에 대한 근대성 논의가 약해지면서 새로이 부각된 것이 있는데, 이른바 ‘인물성동이논쟁’(호락논쟁)이다. 이게 중요하다 했던 이유는 이 사상이 당시 성리학자들에게 변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물성동이논쟁이 18c 사상사에서 갖는 의미를 잘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의 중요성[방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 다음 보기의 왕과 업적이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 근초고왕 때에는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 ㉡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 ㉢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뒤 이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는 등 세력을 넓혔다.
- ㉣ 신문왕은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행정 조직을 완비하였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② ㉠ 4c 근초고왕 ㉡ 6c 법흥왕 ㉢ 5c 장수왕 ㉣ 통일 이후 7c 후반 신문왕 <[원유철의 역사일지](#)> p67, 73, 82, 126

★ tip. 고대국가는 ‘국왕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이뤄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에는 첫 시험이라 말한 그대로 4~6c에 집중해서 나왔다. // ※ 이중에서도 특히 5c 광개토-장수왕의 업적 묻는 문제가 동향에 있으니 주의하고, 4c 근초고왕과 6c 신라왕들은 전통적인 문제유형에 속한다. 4c 근초고왕은 고구려와의 관계가 요즘 동향에 있고, 6c는 오히려 백제의 왕들이 부각되고 있으니 이 점 역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남북국 시대 역시 고대국가답게 전제왕권[왕권 더욱 강화]화된 시기에 집중한다. 신라는 7c 말과 8c 왕(주로 신문왕), 발해는 8c 왕들이 주요하다(그 외는 간략히 보는 방법을 익혀두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19. 다음 보기의 강령을 내세운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77(1쇄 근현대 217)

- 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抗日) 열기를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 ②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임시의정원을 두고,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 ③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봉오동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격파하였다.
- ④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청산리에서 일본군 1200여명을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정답. ①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777(1쇄 근현대 217) // ② 임시정부 ③ 1920년 북간도 봉오동전투 ④ 1920년 북간도 청산리 전투

20.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몇 개인가?

㉠ 석굴암
㉡ 수원 화성

㉡ 종묘
㉢ 경복궁

㉢ 해인사 장경판전
㉣ 경주 역사유적지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③ 경복궁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창덕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유철의 역사일지](#)> pp910-1(1쇄 유네스코 352-3)